

동서양 프레임을 통한 근현대 중국 교육에 대한 성찰

이경자*

김덕삼**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새로운 동서양 논쟁과 변화된 환경
- III. 근대 교육의 변화와 현대 교육의 문제점
- IV. 나오는 말

한글초록

본 논문은 근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동양과 서양의 프레임과 이에 대한 종합적 반성을 중심으로 한다. 이를 토대로 전통의 단절과 외래문화의 도입과 관련하여 사실 분석과 성찰에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현대 중국 교육의 발전과 도약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고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동서양 논쟁과 중국을 포함한 동양의 문화에 대한 달라진 평가 환경을 검토해 보았다. 새로운 동서양 논쟁에서는 중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하여 서구의 기준이 아닌 중국의 기준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변화된 환경에서는 세

* 경상대학교 교육학과

** 대전대학교 창의미래인재대학

계의 변화와 중국의 변화로 구분하여 보았다. 또한 근대 교육의 변화와 현대 교육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았다.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현대교육의 문제점으로 전통 교육의 단절, 서양에 맞춰진 게임의 법칙, 근대 이후 교육에 대한 반성,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의 요구 등을 생각해 보았다. 본 연구는 서구 교육의 장점과 긍정적인 작용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전통과 가치를 왜곡하거나 폐기하여 잃은 것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당면한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 가는냐는 한중일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주제어

중국, 교육, 동서양, 프레임, 근대, 현대

I. 들어가는 말

교육은 중요하다.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몇몇 적정 기술만 제공해도 스스로 훨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정도로,¹⁾ 교육은 중요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에서 사용하는 교육이라는 말과 체계는 서양의 교육에 기초하고 있다. 영어로 education은 불어로 éducation, 독일어로는 Erziehung인데, 이것은 모두 라틴어의 Educare에 기초하고 있다. Educare는 도출(導出), 인출(引出)의 의미를 갖고 있고, 이는 양육과 교수 등의 의미로 확장되었다.²⁾ 청나라 말기에 서구학문이 전파되면서

1) 수가타 미트라(Sugata Mitra). TED 총회에서의 강연을 참조. 에릭 브린올프슨, 앤드루 맥아피 저, 이한음역, 『제2의 기계 시대(인간과 기계의 공생이 시작된다)』(서울: 청림출판, 2014), pp. 246-247.

2) 서구에서 사용된 교육의 의미는 피교육자에게서 능력을 끄집어내는 것으로

education은 한자문화권으로 전해졌고, 이는 많은 번역어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교육(敎育)’이란 용어가 최종적으로 education의 기본 번역어로 확정되었다.³⁾ “敎育”이란 말은 『맹자진심상』에서 처음 발견된다. 『맹자』에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 그들을 가르쳐 기르니 이것이 (군자의 즐거움 가운데) 세 번째 즐거움이다. (得天下英才而敎育之, 三樂也)”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敎育)은 교회(敎誨), 배육(培育)의 의미를 지닌다. 서구의 학문이 동양으로 전해지던 시기에 근대교육개념으로 환영을 받은 “교육”은 중국 사회의 주요단어로 자리잡았다.⁴⁾

교육이라는 어원처럼 현대 중국 교육을 포함하여 학문과 교육 체제는 그 뿌리를 근대에 두고 있다. 그리고 근대교육은 바로 서양 교육의 영향 속에 구축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근대 교육의 전환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전통 교육이 서구 근대 교육으로 급격하게 전환되었다는 데 있다. 이로써 오랜 문화와 경험을 축적한 중국의 전통교육은 단절되었고, 이질적인 서구의 전통과 경험이 커다란 저항 없이 대체되는 과정을 겪었다.

교육과 education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동아시아의 근대에 출현한 신조어로서의 한어는 이를 수용하는 각 지역에서 서양, 서양의 언어, 나아가 서양의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내면에 안고 있다.⁵⁾ 오래된 전통의 단절과 이질적 문화의 대체는 그

생각할 수 있다. 물론 현대의 많은 교육은 피교육자와 상관없이 교육자의 의지와 형편대로 주입하는 것이 대세이고, 이것은 4차 교육혁명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3) 聶長順, “敎育”의近代化, 『湖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5期(2013), p. 13.

4) ‘교육’이라는 번역명의 확립. 聶長順, “敎育”의近代化, 『湖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5期(2013), p. 13.

5)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고전번역학센터 편, 『동아시아, 근대를 번역하다』 (서울: 점필재. 2013), p. 10.

토록 중요한 교육과 교육에서의 인프라를 축소시키거나 왜곡시켰다.

과거 중국 관련 연구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 세계의 공장에서 소비 시장으로의 전환, 혹은 과학과 기술의 성장이나 국제적 영향력의 확대와 강화는 여러 측면에서 다루었던 1차적인 주제다.⁶⁾ 하지만 중국의 발전이 과연 2차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많이 진행되지 못했다.⁷⁾ 특히 사회과학적인 분야의 연구에 비해 인문학적인 방면에서의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했다.⁸⁾ 중국의 2차적 변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다.⁹⁾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2차적 변화와 관련하여 거시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근대와 관련하여 과거 근대 교육에 대한 연구는 마르크스와 유물사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나, 제국주의적 사관에서 주체적인 관점을 제시하지 못하

6) 이러한 논의의 정점에 있는 재미있는 책이 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 아보기』(사라 본지오르니 저, 안지환 역, 경기: 엘도라도, 2007년)라고 생각한다. 미국 가정에서 중국 제품 없이 생활하는 것이 가능할 지를 실감나게 설명한 책이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다.

7) 본고에서 생각하는 의도와는 다르지만, 마틴 자크는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안세민 역, 서울: 부키, 2010년)을 통해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경우 발생할 17가지 변화를 지적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시계를 베이징 시각에 맞추고, 세계의 수도가 뉴욕에서 베이징으로 바뀌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조공제의 등장 등을 언급했다.

8) 그동안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소프트 파워와 관련하여 공자나 유가의 위상을 부분적으로 다루었다. 전가림, “중국의 소프트파워 발전 전략과 그 영향력: 공자학원과 방송 미디어매체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제50권(2010). 인문학적인 분야에서는 유가의 변화나 현대 유가의 의미(宋仲福, 『儒學在現代中國』, (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1)), 혹은 공자의 부활(김성기, “공자의 부활과 유학의 현대적 의의”, 『儒敎文化研究』, 18집(2011), 혹은 중국의 교육(김덕삼, “중국의 경제 성장과 교육의 변화”, 『교육사상연구』, 제27권 제3호(2013)과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9) 김덕삼, “중국의 발전과 공자의 위상 변화”, 『儒敎思想文化研究』, 59집(2015), pp. 217-218.

고, 1차적 자료 해석에 급급하거나 다양한 사회문제와 연관시켜 종합적으로 보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근대 서양 교육의 수용에 의한 변화는 현대 교육의 시원(始原)이다. 그런데 이러한 근원에 대한 연구에서 특히 주체적인 시각에서 동양과 서양이 지닌 차이와 한계를 인지하여 중국의 근대 교육에 대한 객관적 시각에서 조명하는, 혹은 과도하게 서양으로 쏠렸던 관점을 억지로 동양과 동양의 전통에서 생각해보는 연구가 필요하고, 본고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기존에 진행되었던 중국 교육 현상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연구와 달리, 근대에 진행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 교육에 대한 동양과 서양의 프레임과 이에 대한 종합적 반성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의 단절과 이질적 문화의 이식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분석과 성찰이다. 이를 통해 현대의 교육문제와 현대 중국 문화의 발전과 도약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러한 목적과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동서양 문화와 관련된 논쟁과 중국을 포함한 동양의 문화에 대한 달라진 평가 환경을 검토해 볼 것이다. 이를 기초로 근대 교육의 변화와 관련하여 현대 교육의 문제점을 알아봄으로써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새로운 동서양 논쟁과 변화된 환경

1. 새로운 동서양 논쟁

근대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적이 있다. 즉, 지금부터 2세기 사이에 서구의 관점에서 논의된 전통과 근

대에 대한 원초적인 의문이다. 근대에 진행된 패러다임의 전환은 전통에서 현대로, 동양적 틀에서 서양적 틀로 전환된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변하지 않은 것을 내재성이라고 보았다. 내재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은 것이다. 거칠게 표현해서 변한 것이 전통과 근대라면, 그 안에서 변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재성이다.¹⁰⁾ 그런데, 전통과 근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전통이고 어떤 것이 근대인지 우리의 정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9세기 유럽에서 나온 ‘근대’라는 용어 자체에 대하여 새롭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¹¹⁾ 심지어 우리의 전통에 근대성이 있고, 서양의 근대에 낡은 전

10) 내재성은 프랑수아 줄리앙이 푸코가 말한 외부의 사유를 발전시킨 개념이다. 내재성이란 어떠한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원리라 할 수 있는데, 한 사상을 이해하려면 그 사상의 내재성을 알아야 되고, 그 내재성은 사상 내부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다른 사상과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양사상은 동양사상과의 사유방식 비교를 통해, 동양 사상은 서양 사상과의 사유방식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가령 서양 사상의 내재성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존의 지수화풍 변화 이론에 실체와 속성 개념을 도입한데서 비롯된다고 한다. A에서 B로 변화할 경우 아리스토텔레스는 A안에 반드시 B의 속성이 있는지 실체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지수화풍이론은 목적인, 형상인, 운동인, 질료인의 요소로 설명되었다. 서양은 이슬람과 동양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실체로 설명하는 내재성은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신지영, 『내재성이란 무엇인가』 (서울: 그린비, 2009), pp. 16-23.

11) 황런위는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 문제를 배제했으며 자본주의에 ‘국경을 초월하는 기술적인 성격’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술적인 성격’을 세 가지로 귀납시켰다. 자금의 광범위한 유통, 비인격적인 경영방식, 그리고 기술적인 지지요소의 공동관리가 그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와 근대화는 거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황런위 지음, 이재정 옮김, 『자본주의 역사와 중국의 21세기』 (서울: 이산, 2001). 황런위는 중국 전통사회 체제는 절대 수량적으로 관리될 수 없었으나 자본주의는 바로 수량적 관리의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황런위는 전통과 근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사회의 수량적 관리 여부로 보았다.

통이 존재한다면, 이는 변한 것도 되고, 변하지 않은 것도 된다. 하지만 현실은 기존의 이론에 근거해서 전통과 근대에 대한 의문과 반성 없이 우리의 근현대 패러다임의 전환과 내재성을 논하였다. 베버와 마르크스를 극복한 근대에 대한 의식과 서구적 시각을 탈피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¹²⁾ 단순히 자본주의의 역사만으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보다 폭넓게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요구된다.¹³⁾ 이제는 이러한 연구를 시도할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러한 시각의 적용을 교육에서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¹⁴⁾

1840년 아편전쟁이후, 중국은 청 왕조가 멸망한 1910년까지 중국의 것을 틀로 하여 서양의 기술을 수용하려는 중체서용을 주로 유지했

12) 버먼(Herold J. Berman)의 선구적 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그는 1983년에 서구의 법률적 전통의 형성에 대한 연구서를 낸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과거를 다시 서술할 때는 “마르크스와 베버를 넘어서야 하고” 또한 다양한 서구의 민족주의의 오류, 종교적 선입견 그리고 19세기의 역사적 유물론 및 이상형 분석 등을 극복해야한 한다. 예를 들어 지역 명칭의 경우도 그렇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구분이 역사적 실체와 내적 논리 구조에 의한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전략적 지역구도에 의한 자의적 구분으로서 이는 잘못하면 지적인 탐구를 마비시킬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이 될 수 있다. 알렉산더 우드 사이드 지음, 민병희 옮김, 『잃어버린 근대성들』 (서울: 너머북스, 2012), p. 18.

13) 황런위 자본주의는 곧 근대화라고 보았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핵심은 빚을 얻어 사전에 생산하고 미리 분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한다. “중국에서는 왜 자본주의가 출현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한 마리의 물짐승이 환골탈태하지 않는 한 새가 될 수 없다’고. …… 중국에서는 왜 자본주의가 출현하지 않았을까? 중국이 이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본주의를 출현시키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출현시킬 뜻도 없었다.” 황런위 지음, 이재정 옮김, 『자본주의 역사와 중국의 21세기』 (서울: 이산, 2001).

14) 김덕삼·최원혁·이경자, “근현대 패러다임의 전환과 내재성에 대한 고찰-전통과 근대에 대한 한국적 재고(再考)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3집 (2014), pp. 116-117.

다. 그러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했던 것인지, 강유위의 공교회(孔教會)는 1917년 신문화운동의 시작이후 중국적인 것에 대한 집착과 애착을 뒤로하고 서구의 틀에 서구의 문화를 담는 방식을 택하였다. 과학과 민주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 환영을 받았고, 중국의 오랜 전통과 관습은 타도와 척결의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 군주에게 충성을 종용하는 것으로서 효와 가부장제를 오우(吳虞)가 비판하고, 노신(魯迅)은 사람 잡아 먹는 식인으로서 유교를 비판하였다. 이어서 동양과 서양의 논쟁이 제대로 시작되어 올바른 비판과 반성이 도출되기도 전에, 중국 전역은 마르크스의 물결에 휩싸였다. 비록 서구의 마르크스 사상이었지만, 중국인들은 마르크스를 통해 낡은 전통, 자신을 궁지에 빠트린 전통을 부정함과 동시에 서구 제국의 침략을 거부할 수 있고 동시에 중국을 발전시킬 새로운 행동프로그램으로 마르크스를 택했다.¹⁵⁾ 마르크스의 관점도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보도록 중국인을 이끌지 못했고, 결국 중국의 오랜 전통과 문화유산은 왜곡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중국은 내전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과정에서의 이데올로기적 대립, 그리고 문화대혁명이라는 정치권력에 의한 내홍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경제적 발전과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 회복 등에 맞물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과 동양 여러 나라의 발전에 힘입어 중국 문화에 대한 재조명이나, ‘근대’에 대한 재고찰과 동양적, 중국적 근대성에 대한 탐구 등에서 기존의 서양 중심적 관점이 아닌, 새로운 관점이 대두되고 있다.¹⁶⁾

15) 미국의 중국사학자 모리스 마이스너는 중국 지식인들이 전통과 제국주의 모두를 거부할 수 있는 길로서 그리고 중국을 변화시킬 정치 행동 프로그램으로서 마르크스를 선택했다고 보았다.

세계는 중국의 부상을 주목하고 있다. 200여 년 궁지에 몰아 환자 취급하던 중국의 가능성을 눈여겨보며 과거 찬란했던 중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하여 서구의 기준이 아닌 중국의 기준에서 이해하며 보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더 나아가 현대가 안고 있는 서양 문화의 한계를 극복할 가치로서 중국 전통에 입각한 새로운 가치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바로 중국과 중국을 둘러싼 변화된 환경이 이러한 것을 추진하였다.

2. 변화된 환경

변화된 환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언급할 수 있다. 첫째는 세계의 변화이고, 둘째는 중국의 변화이다. 물론 중국과 관련되어 중국의 변화가 비중이 더 큰 것은 물론이다.

먼저 세계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 중국 문화의 화려했던 광휘가 오늘날 중국의 발전과 더불어 다시 부활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발전은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주변국과 서양에도 중국 문화의 다시보기를 부추기고 있다. 지금은 중국의 경제력에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갑을 관계가 형성되었다.¹⁷⁾ 중국을 연구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므로 자연스레 중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다시보기가 깊

16) 김덕삼, “중국의 발전과 공자의 위상 변화”, 『儒敎思想文化研究』, 59집(2015), p. 218.

17)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현실은 더 심각한지도 모른다. 현재 중국의 말 없는 경제적 압박은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있다. 예를 들어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중국 주도로 만들어지는데 세계 각국이 눈치만 살피다가 마감 시점에 임박해서 세계은행이 정한 20대 경제 대국 가운데 미국, 일본, 캐나다, 스페인, 멕시코를 제외하고 15개 국가를 비롯하여 총 48개 국가가 참여할 예정이고, 미국과 일본의 중국 눈치 보기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있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 문화에 대한 리오리엔트(ReOrient) 현상으로 중국과 동양문화에 대한 재조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¹⁸⁾

또한 과거 냉전시대 이데올로기적 가치와 대립이 사라진 뒤, 세계는 경제와 자국의 문화 발전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특히 현재 세계의 주요 이슈는 과거 민족과 계급, 이데올로기와 이념을 다루던 논의에서 동양과 서양의 주제로 변하면서 그동안 서양의 관점으로 보고 이해했던 세계와 동양에 대하여 다시보기를 시도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 중국, 일본의 발전이 작용했다. 더 나아가 서양문화 헤게모니에 대한 대안으로서 동양 문화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동양의 학자를 비롯하여 서구의 학자들도 동양과 중국 문화에 대하여 과거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둘째, 동서양을 논하는 분위기가 변한 것은 사실 동양의 발전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국의 발전에 힘입은 바 크다. 물론 중국은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자산계급의 타도(이미 완성)와 네 가지 옛것(四舊 구사상, 구문화, 구풍속, 구습관)을 타도하려 하였다. 여기에서 전통도, 유교문화도 포함된다. 그러나 80년대 말에 구소련을 비롯하여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서서히 중국에서는 공자의 부활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동안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후 중국 사회와 중국인들을 붙잡아 두고 있었던 마르크스주의를 대신하여, 중국 사회와 중국인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새로운 구심점으로서 필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89년에 일어난 천안문 사태에 대한 서방의 중국 제재는 서방에 대한 반감과 중국의 내적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시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오래된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

18) 김덕삼, “중국의 발전과 공자의 위상 변화”, 『儒教思想文化研究』, 59집(2015), pp. 219-220.

개를 들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부활을 세계만방에 알린 2008년 베이징올림픽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 역할을 하였고, 개막식에서 선보인 중국의 전통과 문화는 중국 문화의 중국적 보기로 나아가는 시작이었다.

얼마 전부터 중국의 발전은 경제와 정치에 이어 문화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경제에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경계를 넘어서는 실험을 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의 견지를 통해 사회주의의 새로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정치 행정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에 취약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업적으로 평가 받는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 즉, 능력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현인정치를 발전시키고 있다. 한 곳으로 모인 권력은 언젠가는 부패한다는 생각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의 삼권분립에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더 나은 정치제도를 찾으려는 인류사적 실험을 하고 있다.

문화의 영역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의식한 행보이다.¹⁹⁾ 연성권력, 즉 소프트파워와 맞물린 전통문화 발전 정책이다.²⁰⁾ 중국은 경제적인 성장에 이어 중국 문화에 대한 성장을 강

19) 여기에 덩달아 국민 가수 출신의 彭麗媛이 국가주석의 부인인 점 때문에 소프트 파워에 대한 관심은 증폭되었다. 그래서 新京報는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업그레이드 하고, 공공외교 능력을 키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2013. 3. 23)

20) 軟性권력과 硬性권력의 시각으로 보는 논의도 이제 실천적이고 내실화를 다지는 상황으로 접어든 것 같다. 연성권력은 조지프 나이(Joseph S. Nye)가 사용한 용어로서 하드파워(hard power)인 경성권력에 대응하는 용어다.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힘인 경제력, 군사력이 경성권력이라면, 연성권력은 인간의 감성적 이성적 창조적 능력과 연관된 분야를 포괄한다 할 수 있겠다. 문화적 자원을 이용해 소프트파워를 극대화한 독일과 프랑스가 있는 반면, 하드파워가 약하나 소프트파워가 강해 주목받는 국가도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의 국가다. 한국과 중국이 취해야할 노선이 다를 것이

구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집중된 것이 연성권력이다. 특히, G2의 반열에 들어선 중국으로서는 연성권력의 확보를 위해 중국 자신의 문화에서 무언가를 찾아 개발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빠져있다.

결국 이것은 그동안 왜곡되고 사장되었던 중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발굴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외적으로 다양한 문화적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서양문화에 대한 역량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²¹⁾ 클래식과 서양화에서 자신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개발도 잇따르고 있다.²²⁾ 같은 맥락에서 시진핑(習近平)총서기는 2015년 “중국은 인류를 위한 더 나은 사회제도를 탐색해 중국의 방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오랜 세월 동안 주변국과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제 근대 이후 침체되어 있던 중국의 문화가 다시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 이때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은 바로 현대 중국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근대 중국에 대한 반성이다.

III. 근대 교육의 변화와 현대 교육의 문제점

1. 근대교육의 변화

일반적으로 한국이나 중국이나 전통 교육에 대해서는 “그 형식은 한문이고 그 내용은 유교였다”는 식의 관점이 지배적이다.²³⁾ 이러한

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강력한 하드파워에 소프트파워가 결합된 스마트파워(Smart Power)도 논의되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스마트 위원회 지음, 홍순식 역, 『스마트 파워』 (서울: 삼인, 2009).

21) 『조선일보』 (2012. 1. 13)

22) 김덕삼, “중국의 발전과 공자의 위상 변화”, 『儒教思想文化研究』, 59집(2015), p. 219.

23) 오천석, 『한국신교육사』 (서울: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4), p. 18.

과정은 단순히 경전 위주의 교육이 서양 학문의 교육으로 바뀐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선교와 관련된 종교적 요인, 무역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 국제정치와 관련된 정치적 요인, 청왕조를 몰아내고 한족의 국가를 복원하려는 민족적 요인, 서양문화에 대한 흥미에서 오는 문화적 요인 등처럼 다양한 국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났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아편전쟁으로 체결된 남경조약(1842), 천진조약(1858), 북경조약(1860) 등으로 문호가 정식 개방되면서 근대화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에서 근대화는 그보다 늦은 1895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로서 ‘근대’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전통교육과 서양의 교육이 전도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났다. 여기서 앞서 지적하였듯이 ‘근대’라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이제는 좀더 주체적으로 생각해서 사용하여야겠지만, 지금까지의 관례에 비추어보면 근대라는 용어는 맨 처음 사용할 때부터 불가피하게 지역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²⁴⁾

통상적으로 말하는 중국 근대교육사상의 발전은 서양교육학의 도입에 따라 서양 학습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다. 서양을 배우고 오래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따라 치용인재(治用人才)를 배양하여 교육으로 구국을 하려는 시대적 흐름도 있었다. 근대 서양교육사상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근대중국의 교육이론과 실천 탄생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근대교육사가 시작된 것은 실제로 근대서양

24) 이 용어는 분명 후기 라틴어 문어에서 나왔다. 9세기경의 유럽인들은 서유럽의 역사에서 샤를마뉴의 통치기를 이교도 작가들 및 초기 교회의 신부들이 활동했던 ‘고대’와 대비시키기 위해 이 말을 사용했다. 알렉산더 우드사이드 지음, 민병희 옮김, 『잃어버린 근대성들』 (서울: 천일문화사, 2012), pp. 27-28.

교육사상이 전입되면서부터이고, 중국의 근대교육사는 중서교육사상의 교류, 충돌 흡수와 융합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²⁵⁾

서양의 교육이 중국의 전통학문과 교육을 대신하여 굳건한 위치를 확립하는 데 다양한 영향이 존재했다. 그 가운데 내적인 요소로서 교육과 관련된 학술지와 외적인 요소로서 선교사의 역할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내적인 요소로서 교육과 관련된 학술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근대서양교육이론의 중요 교육 학술지인 『教育雜誌』, 『中華教育界』, 『新教育』은 서양의 교육이론을 중국 사회에 깊고 넓게 전파한 대표적인 잡지이다. 상무인서관의 주관에 의해 1909년 『교육잡지』(계간)가 발행되었는데 이것은 중국근대교육 잡지 중 발행시간이 가장 길고 그 영향도 가장 많으며 발행량도 가장 많다. 『교육잡지』의 발전사는 바로 중국 근대교육사의 역사이며, 근대중국서양교육사상, 이론 전파, 발전 변화의 역사이다. 『중화교육계』는 1912년 상해 중화서국에서 창간한 교육월간으로 중국 최초로 출판된 교육 잡지 중 하나이다. 이 잡지는 교육을 전국에 보급시키고 민간에까지 문화를 전파하는 것 및 새로운 교육학설과 방법을 알리고 자본주의 국가교육이론과 경험을 소개하는 것 외에 당시 소련의 선진교육이론과 실천경험을 소개하였다. 과학교육, 시청각교육 및 위생과 건강교육, 생활교육 등을 제창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중화서국 업무 방향이 바뀌면서 이 잡지는 1950년 12월에 종간되었다. 『신교육』은 중화신교육공진사(中華新教育共進社)의 간행물로 중화신교육공진사는 서양학술을 직접 들여와 중국의 문화로 삼고 새로운 사조의 자극을 받아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을 취지로 삼았다. 여기에는 듀이(杜威)호, 먼로(孟祿)호 등

25) 李寧·李君·吳昶, “近代西方教育理論在中國的傳播”, 『企業導報』, 12期(2010), p. 279.

10개의 전문호가 있으며 전후로 39개의 항목이 있고 1,456편이 등재되고 모두 작가가 378명에 이르렀다.²⁶⁾

다음으로 외적인 요소로서 선교사의 역할이다. 미국 선교사들이 그들 스스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서양의 문화, 과학지식, 민주정신을 중국에 가지고 와서 교회학교에 종교 이외의 것을 전파하고 이것은 학술활동을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에 중국 전통의 봉건제도와 충돌하였다. 그래서 미국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설립한 학교의 본래 목적이 어떠한지 간에 교회학교는 중국 근대 최초의 비교적 좋은 서학교육기구였다 교회대학의 출현은 중국 고등교육과 서방 고등교육의 차이가 점점 적어졌으며 20세기 초 중국에서 가장 좋은 교회대학의 수준은 이미 유럽과 미국의 일반 대학의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고등교육 발전의 비약은 기독교가 중국에서 설립한 학교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교회학교도 중국을 위해 많은 근대 신형의 지식인을 배양하였고 이것은 중국사회에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도록 했다. 그런데 교회학교를 졸업한 중국의 지식인은 소수만이 기독교 신자였고, 대다수는 학교설립 목적과는 상반된 길을 걸었다. 이러한 지식인은 국민을 걱정하고, 중국의 가난과 낙후된 상황에 대한 개혁을 요구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 교육, 실업 등 방면에서 기여를 하고 혁명의 길을 걸었다. 그래서 미국선교사들의 교육활동은 문화침략으로만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들이 중국 학교 교육 근대화에 대한 공헌은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²⁷⁾

26) 李寧·李君·吳瑕, “近代西方教育理論在中國的傳播”, 『企業導報』, 12期(2010), p. 279.

27) 仇世林, “美國傳教士與中國近代學校教育”, 『山東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5期(2007), pp. 125-129.

2. 현대교육의 문제점

현대 중국의 교육에는 현대 서양 교육의 전파와 관련되어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전통 교육의 단절 즉 오랫동안 전해온 중국 전통의 교육 방식, 교육 내용, 학문 등의 단절이다. 서양 교육이 전파되어 중국의 교육을 전면적으로 바꾸기 전에 중국 교육에도 이러한 정신과 형태의 맹아(萌芽)가 존재했다. 안원(1635-1704)은 학교에서 공자의 인륜조직, 사회규범, 도덕적 가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통적인 육예(六藝)의 교과목 이외에 천문, 지리, 농학, 화학, 치수(治水), 공학(工學) 및 병법(兵法)과 군사기술에 관한 내용까지도 폭넓게 가르칠 것을 주장하였다. 안원은 만년에 장남서원(漳南書院)을 주관할 때 문사재(文事齋), 무비재(武備齋), 경사재(經史齋), 예능재(藝能齋) 등의 학과를 개설하여 교육하였다. 문사재에서는 예(禮), 악(樂), 서(書), 수(數), 천문(天文), 지리(地理) 등의 과목을 두었고, 무비재에서는 황제(黃帝), 태공(태공)과 손무병법(孫武兵法), 공수(攻守), 영진(營陣), 육수제전법(陸水諸戰法), 사어(射禦), 기격(技擊) 등의 과목을 두었으며, 경사재에서는 역대사(歷代史), 고제(誥制), 장주(章奏), 시문(詩文) 등의 과목을 두었고, 예능재에서는 수학(水學), 화학(火學), 공학(工學), 상수(象數) 등의 자연과학에 근거한 과목을 두었다. 이로써 제자들이 덕(德), 지(智), 체(體), 미(美) 등 여러 측면에서 전반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려고 하였다.²⁸⁾ 또한 중국의 전통적인 학문은 사서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중국인은 하늘과 땅을 둘러싼 세계를 문자로 사유하는 문자의 나라에 살고 있었다. 시대마다 많은 서적이 간행되었고 각 왕조마다 정리된 역사서에

28) 김덕삼, “안원 교육 사상의 특징과 현대적 가치 탐구”, 『中國學論叢』, 53집 (2016), pp. 187-188.

는 서적을 정리하는 부문이 별도로 설정될 정도였다.²⁹⁾

안원도 그랬지만 역사상 무수히 많은 중국인들은 나름의 비판의식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당대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건륭제는 과거시험의 채점관들에게 팔고문의 경박함을 뿌리 뽑고 과거시험의 글쓰기에 대해 “기본으로 돌아가도록 하라”는 개혁을 명령함으로써 몽고 귀족들과의 의사소통을 복원해야 했다.³⁰⁾

둘째, 서양에 맞춰진 게임의 법칙이다. 교육 프레임과 교육 내용 자체가 중국적 혹은 전통적인 것이 못되고 서양적인 것이기에 동양과 중국은 따라가기에 바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양과 동양이 시합을 하는데 게임의 룰이 서양의 기준으로 맞춰져 있다면, 과연 그 결과가 어떨겠는가? 이미 우리는 근대 서구 열강의 침략 속에 많은 경험을 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다. 프레임 혹은 장(場)을 바꾸지 않고 서는 게임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 나아가 그 속에서 서구가 우월하고 동양이 미개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즉, 자신의 문화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비하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드사이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기존의 생각과 달리 동아시아의 과거시험과 관료제가 서구의 ‘근대성’의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와 서구는 잘못된 사실에 기초하여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과거제나 관료제는 매우 근대적인 제도였으며 따라서 과거 동아시아에도 유럽과 같은 근대성이 존재했다는 아니 유럽

29) 그래서 청나라 건륭제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사고전서는 이러한 도서 정리 사업을 대표하는 국가적 사업이었다. 양일모, 『옌푸(嚴復): 중국의 근대성과 서양사상』 (경기: 태학사, 2007), p. 237.

30) 알렉산더 우드사이드 지음, 민병희 옮김, 『잃어버린 근대성들』 (2012), p. 34.

보다도 훨씬 더 일찍 이를 선취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³¹⁾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교육은 외적으로 많은 업적을 도출하고 있다. 2010년 OECD 국가에서는 세계 60여개 국가 및 지역 15세 학생의 학업능력에 대해 PISA 평가(국제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고, 중국은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 결과는 유럽과 미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들은 이에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다.³²⁾

셋째, 근대 이후 교육에 대한 반성. 서구의 교육 방식은 산업혁명 시기 대량 생산에 맞춰 많은 산업 인력에게 메뉴얼을 암기시켜 일하게 하는 것에 기초를 둔다. 즉, 공교육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한 점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각 개인의 능력을 발굴하여 이에 맞게 교육시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오늘의 관점에서는 수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제2의 기계 시대 (인간과 기계의 공생이 시작된다)』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우리가 배우는 교육이 대영제국에서 나왔다고 보았고, 그들은 교육을 통해 관료주의적 행정 기계(bureaucratic administrative machine)를 가동하려 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사람을 양산하는 것으로 학교를 만들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컴퓨터가 서기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무실에 무수히 널려 있지요. 그리고 그 컴퓨터가 서기 일을 제대로 하도록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³³⁾

서구에서 시작된 현대의 교육 형태는 이제 새로운 환경에 변화를

31) 알렉산더 우드사이드 지음, 민병희 옮김, 『잃어버린 근대성들』 (2012), p. 15.

32) 텐젠귀 저, 송홍령 옮김, 『중국교육, 세계를 겨냥하다』 (서울: 타래, 2015), pp. 126-127.

33) 에릭 브린올프슨, 앤드루 맥아피 저 이한음 역, 『제2의 기계 시대(인간과 기계의 공생이 시작된다)』 (서울: 청림출판, 2014), pp. 247-248.

요구받고 있다. 비단 이러한 요구는 교육 시스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다른 측면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즉, 근대 교육에서 강조되었던 서구적 계몽 이념에 대한 반성의 요구와 이에 대한 인간중심주의적 입장에 대한 강화이다. 근대 교육에서도 강조되어 부지불식중에 교육에서 중시되었지만, 근대 이후 인류는 문명과 발전의 이름으로 끊임없는 경쟁을 요구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막스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와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Adorno)가 쓴 『계몽의 변증법: 철학적 단상』에서 근대 이후 서구 계몽주의의 요체가 인간의 ‘물화’와 ‘지배’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물질적 생산에서 거론되었던 ‘물화’와 ‘지배’가 영향력을 넓혀 우리 삶의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아도르노의 경우 “생산 과정의 형식들은 사적 영역 또는 그런 형식들로부터 면제된 영역에서도 보편적으로 복사된다”고 지적했다.³⁴⁾ 막스 호르크하이머와 테오도르 아도르노는 “계몽의 프로그램은 세계의 ‘탈마법화’였다. 계몽은 ‘신화’를 해체하고 ‘지식’에 의해서 상상력을 붕괴시키려 한다”고 비판하였다.³⁵⁾

결국 인류의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누군가는 인류 과학의 발전과 우주의 개발로 성장은 지속될 수 있다고 반박할 것이다. 물론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결국은 한 개인 개인에게 종속되고, 한 개인은 많은 제한과 한계의 한정된 체계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인류 각 개인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폭주하는 열차의 질주를 막을 길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동양 전통의 방법에 기대어 탐구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적자생존에서

34)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Adorno), 김유동 역, 『미니마 모랄리아: 상처받은 삶에서 나온 성찰』 (서울: 도서출판 길, 2009), p. 186.

35) 막스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Adorno), 김유동 역, 『계몽의 변증법: 철학적 단상』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4), p. 21.

도 경쟁이 아닌 공존이 진화의 본질이고,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공감의 능력은 바로 오래전 중국의 공자의 사상에 강조되어 있다.

넷째,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의 요구. 기술이 교육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빠르게 발전할 때, 일반적으로 불균형이 나타난다.³⁶⁾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35년에 피셔(Herbert Albert Laurens Fisher, 1865 - 1940)는 “나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역사에서 어떤 계획과 리듬과 미리 결정된 패턴을 찾아냈다. …… 역사가는 인간 운명의 전개에서 예측 불가능하고 우발적인 것을 볼 뿐이다. …… 한 세대가 얻은 바탕은 다음 세대에서 없어져버린다.”³⁷⁾고 하였다. 교육도 이와 같다. 지금 사회의 불균형도 어떤 면에서 교육과 기술의 속도 문제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가 많은 것을 우연과 우발적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오늘의 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체스판에 비교하여 나타내기도 한다. “체스판의 첫 번째 칸에는 쌀 한 알을 놓고, 두 번째 칸에는 두 알을, 세 번째 칸에는 네 알을 놓는 식으로, 다음 칸으로 갈수록 쌀알의 수를 앞 칸보다 두 배씩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체스판의 칸을 옮기면서 63번의 배가가 일어나고, 이것은 2의 (64-1)승으로 변하게 된다.³⁸⁾ 그리고 지금의 변화는 앞서의 변화와 그 속에서의 경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안내를 해주던 것과 다른 차원

36) 에릭 브린올프슨, 앤드루 맥아피 저 이한음 역, 『제2의 기계 시대(인간과 기계의 공생이 시작된다)』 (2014), pp. 262-263.

37) 마크 뷰캐넌 지음, 김희봉 옮김, 『우발과 패턴』 (서울: 시공사, 2014), p. 20. H.A.L. Fisher, quoted in Richard Evans, In Defence of History(Granta Books, 1997), pp. 29-30.

38) 에릭 브린올프슨, 앤드루 맥아피 저, 이한음역, 『제2의 기계 시대 (인간과 기계의 공생이 시작된다)』 (2014), pp. 64-66.

의 미지의 세계를 향한 변화 형태를 지니고 있다.³⁹⁾ 변화가 빠르고 전면적이며 낫설다.⁴⁰⁾ 확실한 것은 이처럼 빠른 변화를 지금의 교육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대와 불일치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문화지체현상(Culture lag)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근대에 뿌리를 둔 교육에의 반성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IV. 나오는 말

근대이후 전파된 서구의 교육은 중국과 인류에게 많은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예를 들어 서구교육과 함께 전해진 과학과 민주의 전파는 중국 사회를 발전시키고 변화시켰다. 본고에서도 서구 교육의 장점과 긍정적인 작용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양이 아닌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양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오랫동안 존재했던 자신의 것을 버리고, 남의 것을 그대로 수용했을 때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이다. 기존의 전통과 가치를 왜곡하거나 폐지하여 잃은 것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대안 없는 비판은 비판이라기보다 비난에 가까울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지금 본고에서 지적한 것에 대한 정답을 제시할 정도가 못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변화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좋은 답을 찾기 위한 탐구를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중국은 과거의 쇠락을 뒤로하고 부활하였다. G2로서의 확고

39) 게다가 변화가 오류를 제거하고 올바른 지식만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폐해도 크다. 새뮤얼 아브스만 저, 이창희 옮김, 『지식의 반감기』(서울: 책읽는 수요일, 2014), pp. 113-156. 책에서는 지식의 수명, 변화의 패턴 등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하고 있다.

40) 김덕삼, “변화(變化)와 장(場)에 대한 초탐(初探)”, 『가설과 상상』, 2집(2016), p. 7.

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소프트파워에 힘을 기울이고, 이를 위해서 전통문화 발굴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정치와 경제에 자신들의 방식으로 접근하여 기존에 인류가 가지 않은 길을 제시하고 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고, 더 많은 확산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레 교육에서도 이와 같은 중국적 방식이 대두될 것이고, 여기에서 근대 서구 교육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중국 전통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모델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완전히 중국 전통으로 회복되지도 않을 것이지만, 완전히 서구적인 방식으로 질주하지도 않을 것이다. 중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다른 문화권과 만나면서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켰다. 한당시대의 인도불교, 명말 청초의 가톨릭, 청말 이후 서양의 영향 등이다. 중국에서 인도불교의 수용은 후한시대에 시작되어 위진남북조시대에 들어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수당시대에 번영을 구가한 이래 송나라 시대 이후에는 점차 활기를 잃어갔다. 중국 사회는 인도불교를 수용하면서 세계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였다.⁴¹⁾

자연스레 중국 교육에 있어서 현대 사회의 교육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식의 교육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에 예일대학(Yale University)을 설립하고자 했던 에드워드 흄(Edward M. Hulme)이 1924년 11월 중국 장사(長沙)에서 “앞으로 우리의 서양식 훈련 및 사고방식과 우리를 둘러싼 동양적 환경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고 예언했듯이 현재 동양 사회 곳곳에서는 “서양식 훈련 및 사고방식과 우리를 둘러싼 동양적 환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참 어려운 일이다. 이미 학문의 체제는 서구의 전통 학문의

41)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고전번역학센터 편, 『동아시아, 근대를 번역하다』 (2013), p. 53.

틀에서 진행되고, 여기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본고의 초점은 현대 교육의 질적 문제에 대한 부정에 있지 않다. 현대 중국 교육은 충분히 발전하였다. 고등교육 대중화에 관련해서 미국은 30년이 걸렸고 영국은 28년이 걸렸으며 프랑스와 독일, 일본은 각기 25년, 24년,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중국은 9년이라는 기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중국의 고등교육이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할 때 빠른 속도의 규모 팽창이 가져다 준 교육의 질적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⁴²⁾

질적 문제에 대한 지적과 개선 방안의 제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본고에서는 현대 교육 자체에 대한 의구심에서 출발하여 현대 교육의 기원인 근대 서구교육의 유입에 따른 문제점부터 생각하여 현대 교육의 틀, 프레임 자체에 대한 반성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 현대 교육의 문제점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이 반성과 성찰없이 진행될 때 이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어쩌면 과오를 되풀이할지도 모른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내부에서 조차 변화의 요구를 수용하여 해결책을 만들지 못하면, 심중팔구 외부의 힘에 의해 변화가 진행된다. 이미 한국과 중국은 근대에 이러한 경험을 혹독하게 겪었다. 물론 당장의 해결책과 대안은 찾기 어렵다. 하지만 언젠가는 풀어야 할 일이다.

본고는 이러한 측면에서 당장의 방법론 제시와 문제해결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싶지 않다. 본고에서는 근대 이후 서구 학문의 전파와 영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러한 영향이 더 고착화되기 전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 가치와 목적을 둔다. 왜냐하면 오랜 전통이 제거되고 끊임없이 서구의 것으로 확대재생산을 반복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42) 텐젠궈 저, 송홍령 옮김, 『중국교육, 세계를 겨냥하다』 (2015), p. 37.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다른 무엇보다 교육은 확대재생산을 가장 강하게 추진하는 요소이기에 교육에서 먼저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미래도 밝지만은 않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⁴³⁾ 또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별 구매력이 1인당 GDP 기준 1만5천 달러가 되면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GDP의 증가는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극적인 힘을 증가시킨다. 반면에 사회적 불균등은 민주화를 촉발시키고, 이러한 것을 중국 상황에 비추어 보면 5년 내 중국의 구매력이 1인당 GDP 기준으로 1만5천 달러를 능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⁴⁴⁾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중국은 민주화를 요구하여 민주주의의 중국이 되든지 아니면 몰락하는 중국이 되든지, 그 단서가 잡힐 것이다.

그러나 과거 역사를 보면, 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성공해야만 중국이 굴기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춘추전국시기 공자를 비롯하여 제자백가의 교육이 있었고, 한대의 유가 중심의 교육이 있었기에 사회발전을 견인할 수 있었고, 수대의 혁신적인 과거제도를 통해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게 됨으로써 이어진 왕조에서의 발전이 이루어 질

43) 중국 지도부가 소비와 내수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하고 있지만 이 과정은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GDP의 약 5%포인트를 고정자산 투자가 기여했다. 이제는 소비 쪽에서 6%포인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소비자들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장은 저성장을 겪어야 할 수도 있다. 머니투데이 특별 취재팀,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 (서울: 비즈니스북스, 2013), pp. 227-228.

44) 민주화된 중국은 현재보다 더 민족주의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거나 국가의 힘이 내부로 향하면 정치 불안과 중국 경제의 하강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어린 분석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세계 경제에 커다란 쇼크로 다가올 것이라며 주의를 요하고 있다. 박영숙 외, 『유엔미래보고서 2040』 (서울: 교보문고, 2013).

수 있었다. 교육 혁신은 중국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많은 국가들의 경쟁도 결국 교육에서 결정될 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육은 사회적 이동을 자연스럽게 하는 장치이자, 기호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수평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굴기는 현대 중국이 당면한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 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스마트 위원회 지음. 홍순식 역. 『스마트 파워』(서울: 삼인, 2009).
- 마크 뷰캐넌 지음. 김희봉 옮김. 『우발과 패턴』 (서울: 시공사, 2014).
- 마틴 자크·안세민 역.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서울: 부키, 2010).
- 막스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Adorno)·김유동 역. 『계몽의 변증법: 철학적 단상』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4).
- 머니투데이 특별 취재팀.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 (서울: 비즈니스북스, 2013).
- 박영숙 외. 『유엔미래보고서 2040』 (서울: 교보문고, 2013).
-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고전번역학센터 편. 『동아시아, 근대를 번역하다』 (서울: 점필재, 2013).
- 사라 본지오르니 저. 안지환 역.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 (경기: 엘도라도, 2007).
- 신지영. 『내재성이란 무엇인가』 (서울: 그린비, 2009).
- 안드레 군터 프랑크·이희재 역. 『리오리엔트』 (서울: 이산, 2003).
- 알렉산더 우드사이드 지음. 민병희 옮김. 『잃어버린 근대성들』 (서울: 천일문화사, 2012).
- 양일모. 『옌푸(嚴復): 중국의 근대성과 서양사상』 (파주: 태학사, 2007).
- 에릭 브린올프슨·앤드루 맥아피 저. 이한음 역. 『제2의 기계 시대(인간과 기계의 공생이 시작된다)』 (서울: 청림출판, 2014).
- 오천석. 『한국신교육사』 (서울: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4).
- 이언 모리스·최파일 역.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 (서울: 글항아리, 2013).
-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Adorno)·김유동 역. 『미니마 모랄리아; 상처받은 삶에서 나온 성찰』 (서울: 도서출판 길, 2009).
- 텐젠귀 저. 송홍령 옮김. 『중국교육, 세계를 겨냥하다』 (서울: 타래, 2015).
- 토마스 메츠거·내성 옮김. 『곤경의 탈피』 (서울: 민음사, 2014).

- 황런위 지음. 이재정 옮김. 『자본주의 역사와 중국의 21세기』 (서울: 이산, 2001).
- 김덕삼. “중국의 경제 성장과 교육의 변화”. 『교육사상연구』. 제27권 제3호 (2013).
- _____. “중국의 발전과 공자의 위상 변화”. 『儒敎思想文化研究』. 59집 (2015).
- _____. “변화(變化)와 장(場)에 대한 초탐(初探)”. 『가설과 상상』. 2집(2016).
- _____. “안원 교육 사상의 특징과 현대적 가치 탐구”. 『中國學論叢』. 53집 (2016).
- 김덕삼·최원혁·이경자. “근현대 패러다임의 전환과 내재성에 대한 고찰-전통과 근대에 대한 한국적 재고(再考)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3집(2014).
- 김성기. “공자의 부활과 유학의 현대적 의의”. 『儒敎文化研究』. 18집(2011).
- 전가람. “중국의 소프트파워 발전 전략과 그 영향력: 공자학원과 방송 미디어매체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제50권(2010).
- 『조선일보』 (2012. 1. 13).
- 『조선일보』 (2013. 3. 23).
- 仇世林. “美國傳敎士與中國近代學校敎育”. 『山東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5期(2007).
- 聶長順. “敎育的近代化”. 『湖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5期(2009).
- 李寧·李君·吳瑕. “近代西方敎育理論在中國的傳播”. 『企業導報』. 12期(2010).

通过东西方教育框架来审视中国近现代教育

李庚子, 金德三(庆尙大学校, 大真大学校)

本论文是对近代开始到现代的东方和西方教育构架的综合反省。以此为基础, 导入与之关联的对传统教育的断绝和外来文化进行分析和反省为目的。本人认为通过这一现象可以对现代中国教育发展和飞跃进行考证。本论文是针对新的东西方教育的争论和包括中国在内的东方文化的不同评价进行的研究。在新的东西方教育争论中, 对中国的传统和文化理解上尝试着不是以西方的标准, 而是以中国的标准来进行理解。因为世界和中国的变化而改变的环境进行说明。另外, 还揭示了近代教育和现代教育的变化。本研究的通过主题和与之相关的现代教育的问题, 指出对传统教育的断绝、对西方游戏的法则、对近代以来教育的反省、社会变化所发生的新的要求。本研究不是否认西方教育的优点和积极作用。在现存的传统价值中对歪曲或废弃的教育进行再次了解。韩中日三国在解决这样的教育问题时, 都需要考虑这样的问题。

关键词

中国, 教育, 东西方, 构架, 近代, 现代